

# 원망(願望)의 좌절과 해원(解冤)의 방식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

전 홍 남\*

## 차 례

1. 머리말
2. 제주의 공간성과 그 함의
3. 원망을 겪는 국가(사회)폭력의 원형
4. 해법을 찾아서
6. 맺음말

## 1. 머리말

이청준의 소설에서 '제주'는 낯선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어도」를 비롯해서 최근의 『신화를 삼킨 섬』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그의 작품 속에서 독특한 공간으로 설정되곤 한다. 이렇게 이청준이 그의 소설에서 '제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주로 삼는 이유는, 우선 작품의 성격에 맞게 공간적 특성을 설정한 측면, 이를 테면 “자생적 운명의 존재 방식을 성찰할 때 섬 모티프를 즐겨 채용하는”<sup>1)</sup> 점도 있겠지만, 작가 스

\* 한려대 교수

1) 우찬제, 「작품해설: 풀이의 황홀경과 다시 태어나는 낯」, 『신화를 삼킨 섬』2, 열림

스로 바다나 섬에 대한 친밀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sup>2)</sup>

특히 『신화를 삼킨 섬』은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을 작품의 직접적 배경으로 삼은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 작품을 두고 “98년 4월 문학전집 발간이 시작될 무렵 착수해 5년 만에 완성한 소설로 40년 소설 인생을 갈무리하는 뜻 깊은 작품”<sup>3)</sup>, 혹은 “이름 없는 역사의 희생자들, 좌나 우의 편가르기조차 무의미한 억울한 역사 앞의 죽음을 위해 소설 인생 사십을 바라보는 작가가 펼쳐 놓은 한판의 셋김굿”<sup>4)</sup>, 그리고 “오랜 세월 저자가 4·3에 대한 취재와 탐문 그리고 자료연구, 또한 무속과 무속인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고 평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이 같은 언론의 관심과 문단의 호평이 단순히 원로 작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나온 ‘주례비평’에 머문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신화를 삼킨 섬』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제주 4·3사건’을 작품의 직접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이 작품이 단순히 현대사를 작품의 직접 배경으로 한 점이 문제성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한 사건에서 빚어진 아픈 상처를 위무하고 작품화하는 방식에 주목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지금까지 보여준 이청준의 작품세계를 계승하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문학적 지향과 보폭을 넓히려 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이청준의 작품세계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작은 작품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신화를 삼킨 섬』을 분석해 이 작품에서 그려진

---

원, 2003, 217면.

2) 이청준의 고향이 전남 장흥인 점을 염두에 둔 진술이다. 이외에도 한승원은 특히 바다와 섬을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가 ‘고향탐색의 도정과 공간화 전략’을 통해 이들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성의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별도의 글을 준비중이다.

3)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23일.

4) 한국일보, 2003년 5월 26일.

5) 조선일보, 2003년 5월, 23일.

‘제주’의 공간성이 갖는 의미와 특성, 그리고 4·3사건에 대한 문학적 해법(?)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구명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본격적 분석에 앞서 이청준 문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평가의 지적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제 이청준의 문학은 그 율곽을 드러낸 듯도 하지만, 이청준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는 아직 그 전모를 노출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들은 근원적으로 ‘열린 텍스트’이기 때문이며, ‘활동 중인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청준 문학은 여전히 다시 읽혀질 수밖에 없다.<sup>6)</sup>

위의 지적에도 적시하고 있듯이 이청준 문학은 연구자나 비평가들의 손에 쉽게 걸려들지 않아 마치 ‘베일에 속에 가려진 여인’처럼 신비스러운 모습을 띤다.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성긴 그물로는 좀처럼 그 실체가 포착되지 않는 ‘영물스런 물고기’와도 같다고 하겠다. 당연히 촘촘한 그물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 실체를 어렵פות이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은 연구자나 비평가들의 호기심을 더욱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청준 소설의 원형(혹은 본질)을 캐는 작업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그만큼 그의 문학이 안고 있는 스펙트럼의 폭이 넓고도 깊다. 이런 점에서 “이청준 문학은 어떤 거대한 현대 문학사에도 편입될 수 없는 이청준만의 문학사를 이루었다”<sup>7)</sup>는 평가 역시 지나친 찬사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저간의 평가를 이 작품에도 적용해도 될지 『신화를 삼킨 섬』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갈 차례다.

## 2. ‘제주’의 공간성과 그 함의

6) 이광호, 『움직이는 부재』, 문학과 지성사, 2001, 195면.

7) 앞의 책, 208면.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작가에 따라서 작품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가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공간성은 도외시할 수 없는 요소를 지닌다. 더욱이 한 사회의 공간 구조는 분명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기본 조직 원리 또는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된다.<sup>8)</sup> 따라서 공간은 단순한 사회생활의 공간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설에서의 공간묘사는 세계인식을 위한 장치가 된다. 공간의 묘사를 통해 소설가는 세계에 대하여 갖는 관심의 정도와 질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9)</sup> 특히 이청준의 소설의 공간인식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를 지닌다. 그의 소설의 전개는 공간에 대한 독특한 인식 아래 서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만큼 작품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는 시공간의 교묘한 결합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삶의 구조, 더 나아가 삶의 본질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담아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청준의 소설들은 이항 대립적 시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현실의 시공간은 고통의 세계이며 절망의 바다다. 반면에 이상의 시공간은 구원의 자리가 된다. 작가의 많은 작품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껴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한편, 「이어도」에서 제주의 공간은 다소 신비적이고 베일에 쌓인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한 연구자는 “「이어도」에서 환상

8) 최병두,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1991, 51면.

9) 이대규, 「<타류>의 도시 공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0호, 1999, 6, 172면.

10) 「잔인한 도시」에서는 도시를 가로질러 고향 찾아가는 행위로 형상화된다. 작가의 여타 소설들에서는 ‘노래 부르기’(「이어도」), ‘강엿 빨기’(「살아있는 늪」), 사진 찍기(「시간의 문」) 등으로 변형된다. 이대규, 「이청준 소설의 시공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호, 1996, 191면.

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어도의 부재가 곧 이어도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역설의 담론 구성이다.(…) 이러한 역설이 증오와 사랑, 구원과 죽음, 이어도와 제주도라는 대립항을 결합해 내면서 이어도는 담론적으로 구성된 환상의 섬이 된다”<sup>11)</sup>고 분석한 바 있다. 이청준의 소설에서 ‘이어도’는 ‘죽음의 섬’이자 ‘구원의 섬’이 된다. ‘이어도’가 일상적인 삶과 사고의 바깥쪽인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현세의 생활까지 간섭해 오고 있음을 통해, 우리는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는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고통스러움 속에 열려있는 정신적 탈출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도’는 비현실적인 허구의 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삶의 개선에 대한 원망(願望)이 함축된 현실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라는 환상의 낙원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회귀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은 현세적 삶의 고달픔을 이기고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대응방식이므로, 그 고달픈 삶이 해소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한 이어도는 구원의 섬으로 남아있게 된다.<sup>12)</sup>

반면, 『신화를 삼킨 섬』에서 그려진 제주는 우리 현대 역사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공간으로 보다 현실 가까이에 접근해 있다. 즉 제주는 “씻겨도 씻겨도 넘쳐나는 게 원귀들 천지”(18)로 그려진다. 제주라는 고립된 지리적인 공간으로 인해 더 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제주민의 ‘한’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셈이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낙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아픈 역사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안고 살아야 하는 제주민들의 ‘한’과 ‘서러움’이 가득한 공간이 제주다. 이런 점에서 『신화를 삼킨 섬』은 ‘4·3사건’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4·3사건’이 근래 새롭게 조명되고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자 시류에 영합한 소재적 차원에서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sup>13)</sup> 이청준이 이 작

11) 김혜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8집, 2002, 6, 313면.

12) 김중희,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121면.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월에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

품에서 지향하는 바는 그러한 표면에 가려진 이면, 또는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평범한 사람들의 비애와 절곡의 삶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전의 소설 그러니까 「당신들의 천국」이나 「자유의 문」 등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서 이청준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국가와 사회 조직 문제를 더욱 응승깊게 탐문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자의 지적은 이 작품 분석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청준은 60년대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통해 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세계의 모순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끊임없이 모색하는 이청준 문학의 동력은 자유의 정신이었다. 이같은 자유의 의지는 무조건적인 부정과 일탈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구의 정신으로부터 근원한다.<sup>14)</sup>

위에 인용된 대목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자유의 정신’은 이청준의 작품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청준이 보여준 작품세계가 다양하고 방대해서 한 두 마디로 망라할 수 없다는 하지만, ‘자유의 정신’ 만큼은 그의 작품세계의 원형을 이루는 인자다. 또 이 같은 자유의 의지는 무조건적인 부정과 일탈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구의 정신으로 근원한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에 억압당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나 그 폐해를 집요하리만치 물고 늘어진다. ‘탐구의 정신’은

---

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위원회에서 조사 활동을 벌여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2003년 10월 15일 확정 채택하였다. 2003년 10월 31일의 대통령의 사과는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부터 이미 이청준은 4·3사건을 작품화하기 위해 제주를 취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섭렵했던 것 같다. 이 작품은 2003년 5월에 열림원에서 상·하 2권으로 상재되었다. 앞으로 본문 인용은 여기에 의존하며 말미에 인용된 면수만 밝힌다.

1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5, 360면.

이런 ‘자유의 정신’을 받쳐주는 기둥이다. 또한 ‘탐구의 정신’은 그의 작품을 지탱해 주는 방략적 측면에 보다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청준의 작품들이 대체로 추리소설식 전개방식을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추리소설식 구성은 느슨한 사건의 전개를 보완하여 작품 구성의 극적 긴장감을 형성하는데 보탬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직설적 담론을 피하고 간접화된 담론방식을 취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독자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방적인 주제의식의 전달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보려는 측면이 더 크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종민이라는 민속학자로 하여금 제주 사람들이 ‘한’을 추적하고 위무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우리는 4·3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구명에 초점이 모아지기보다 그런 절곡의 삶을 견뎌온 민초들의 지혜와 추동하는 힘을 통해 더 먼 곳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의 잣대로 이 작품을 접근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청준은 우리 현대사를 암울케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문학적 반응(?)이 더딘 편에 속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역사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민감한 현대적 사건일수록 진실의 왜곡과 은폐의 여지를 안고 있어 자칫하면 또 다른 임의적 왜곡과 역사적 진실의 실종을 경계하는 측면이 크다. 이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경외감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사려 깊은 작가의식의 발로와도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 혹은 단일한 현대 사건에 대해서 그 동안 문학적 반응을 자제해 왔던 작가가 ‘4·3사건’에 기울인 관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4·3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뒤에 남녘 하늘을 찢는 빛으로 붉게 물들게 한 ‘여순사건’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여순사건’을 작품의 직접 배경으로 한 이청준의 작품은 없다. 물론 두 사건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해방공간의 두 사건은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으로 동종성을 지닌다. 다만, 이 작품에서 정

요선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여순사건'의 발발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즈음에 일어난 남녘의 사건과 4·3사건을 은연중 동궐에 놓고는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 연결고리는 미약하고,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해방정국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빚어진 열망의 좌절과 그 비애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작품 속으로 더 들어가 보자. 유정남의 아들 요선은 자신이 한센병 환자로 '인민의 나라' 건설에 뜻을 두다가 소록도 갱생원에서 죽어간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 유정남은 젊었을 때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꿈을 꾸었던 청년을 흠모했다. 한센병 환자였던 청년은 소록도 갱생원에 들어가 무고하게 죽어갔다. 유정남의 아들 요선이 실은 이 청년의 자식이었다.

이상향을 꿈꾸다 좌절한 사람의 이야기는 소설을 맺는 아기장수 설화와 맞닿아 있다. '바위가 단혀 있어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무장이 다그치자 아버가 토로했다. 어디서 말울음 소리가 세 번 들리더니 바위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장이 채찍으로 군마를 갈기자 말이 울고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몸을 숨겼던 아이는 무장의 칼에 죽었다'. 아이는 장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세상에 나올 날을 하루 앞두고 죽어갔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아기장수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4·3사건과 '여순사건'의 성격 규정을 놓고 연구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현재진행형이지만, 두 사건은 '평범한 보통사람들도 인간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열망하다가 좌절한 사람들'의 얘기라는 점에서 관통한다.

이청준의 작가적 관심이 여기에 있는 듯 하다. 이런 점에서 이청준의 작품이 해방공간의 현대사에 머물고 있음을 범상하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1980년의 5·18광주항쟁을 비롯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조금씩 형태는 달라도 그 근원의 유사함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4·3사건이나 1980년대의 5·18광주항쟁도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특한 일부 세력들이 국가권력을 방자해서 휘두른 폭력과 탄압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동궐에 놓는다. 하지만 이청준의 소설에서 고발의 방식이 조금



은 독특하다. 직접적이기보다는 은유적이고 관념적 차원에서 그러한 비극을 잉태한 근본원인을 추적하는데 비중을 둔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작품화하면서 이청준의 소설은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데 일정한 거리를 두어 왔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이청준의 작품세계는 다소 관념적이고 우의적인, 혹은 알레고리적 방략에 의존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점은 그의 작가의식(역사관)과 관련되어 있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15)</sup> 이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작품에서 '신화'적 요소의 도입이나 무속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을 해명하는 데 유효한 암시를 제공해 준다.

### 3. 원망(願望)을 꺾는 국가(사회)폭력의 원형

이 작품에서 '신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작가는 왜 신화를 끌어들이었을까. “나이 먹은 부부가 오랫동안 치성을 드린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 아이가 어갓죽지에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비상한 징후를 지닌 아이들을 잡아 죽이곤 해, 부모는 근심하다가 아이를 죽이기로 했다. 그날 밤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바위에 아이를 묻으라고 일렀다. 신령의 말을 따랐는데 소문이 퍼졌다. 아이를 묻은 지 아흔 아홉째 날에 관가 군졸들이 아버를 앞세워 무덤에 갔다”(13면-15면)

이청준이 제주도에 전해지는 ‘아기장수 설화’에서 찾아낸 것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폭력이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설화는 표면적으로 부각될 뿐

15) 이청준의 작품을 접한 연구자 및 비평가들은 그의 소설을 이른바 ‘지식인 소설’ 혹은 ‘관념소설’의 계보에 자연스럽게 끼어 넣어 왔다. 사실 이청준의 작품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문학성을 담보하고 있으면서도 대중성의 확보와 괴리를 갖는 것은 이런 맥락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청준의 작품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참조.

이지 그 기저에는 제주의 민속, 무속 등 우리 사상의 근원체계와 맞닿아 있다. 처음과 결말부분을 통해 수미일관의 형태로 신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설의 문을 열고 닫는 아기장수 설화는 ‘변화에 대한 개인들의 열망과 이를 꺾는 국가(사회)폭력이라는 반복되는 역사의 원형’과 같은 것으로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룬다. 27년 전 장편 「당신들의 천국」에서 짚었던, 썩어가는 권력의 문제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sup>16)</sup>

그럼 신화의 원리와 무속이 어떤 공통점을 갖는가. 이러한 요소를 도입한 의도를 해명하는 것도 이 작품의 실마리를 푸는 데에 유익한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신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접근은 우리에게 시사적이다.

신화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인간의 열망과 꿈이 구현되어 있다. 언뜻 삶과 동떨어진 듯 황당무계해 보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신화가 인간적 조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조건은 대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기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고 인간 본연의 욕망과 이상을 가상으로나마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신화적 시간과 공간의 양상을 빚어낸다.<sup>17)</sup>

인용문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인간의 열망과 꿈이 구현되어 있다. 반면 무속은 신을 매개로 벌이는 여러 형태의 재연행위를 말한다. 특히 “굿은 음악·노래·춤·무대·장식 등의 감각적 경험 대상의 측면들로 이루어진 객관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무당과 약사들간의 관계, 기주와 무당간의 관계, 굿하는 집안이나 마을 사

16) 「당신들의 천국」은, 권력과 지배자의 독단에 대한 시대적 알레고리를 담고 있어 당시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의 그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던 개인적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이창준의 중기소설을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보다 주목할 만한 분석은 김윤식, 「당신들의 천국:자율적 운명의 끈」, 『황홀경의 사상』, 홍성사, 1984; 나병철, 「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현역중진작가연구』1, 국학자료원, 1997 참조.

17) 장일구, 「과도의 공간, 그 신화적 원형과 서사적 변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학술발표대회 요지집 1994. 6. 18, 29면.

람들간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 무당과 관중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복합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또 곳에 초청되는 신들과 무당, 기주(祈主)<sup>18)</sup> 및 가족 내지는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종교현상일 수도 있으며, 그밖에도 예술·민속·신화·연극·교육 등의 현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복합적 현상<sup>19)</sup>이다. 요컨대 굿이란 신, 무당, 인간 각 자가 자신의 위치와 공간에 처하는 평상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사람이 무당을 통해 신을 조종 내지 이용하고 나서 본래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종교적 의례 절차이다.<sup>20)</sup> 김열규는 한국신화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첫째 '내림굿' 내지 '맞이굿'의 절차를 그 줄거리를 삼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는 이들 신화가 성무식(成巫式)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른바, 타계여행 내지 우주여행의 절차를 역시 줄거리로 삼는다는 점이다.<sup>21)</sup> 따라서 신화시대의 문화영웅들은 모두 제정의 우두머리로서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 혹은 사제, 즉 우리 문화 속에서는 무당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속의 굿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접근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굿의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죄의식을 해소하고 죽은 자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망자가 한을 풀었으니 더 이상 현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산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망자가 죽었음으로 해서 갖게 되었던 그에 대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sup>22)</sup>

18) 기주란 굿을 하는 집의 주인을 뜻한다. 흔히 무속에서는 그 집의 여자 주인을 기주라 부르고 남자 주인을 대주(大主)라고 부른다.

19)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93, 203쪽.

20) 앞의 책, 209쪽.

21) 김열규는 신화가 제의의 구술상관물이라는 제의학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신화 역시 제의의 상관물이라는 논증을 펴고 있다.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 김열규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8, 63-64면 참조.

22) 김인회, 앞의 책, 262면.

이처럼 신화와 무속은 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신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신화 또한 알다시피 현실과 가장 유리된 상상 속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즐거움을 이룬다. 역사는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현실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인간이 그 정점에 놓인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신화, 역사와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 무(巫)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巫)는 하늘과 땅과 사람 3자간에 서로 조화를 얻어 지켜 나가려는 것”을 소망하고 지향한다. 땅자의 원혼을 위무하고 달래서 산 자들의 죄의식을 털어내기 위한 통과의례로 작중의 주요 인물들로 무당을 등장시킨 것이다. 역사와 신화의 관계도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유리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만 그 근원을 캐보면 이 둘은 아주 가까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와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신화 속이나 있을 법한 사건이 이곳 제주도에 몰아쳤던 현실을 역사적 현실로 되찾기 위한 몸부림과 긴장이 이 작품에 흐른다. 이 작품의 인물설정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굳이 주인공이라 할 만한 인물은 정요선이고, 제주도 토박이 무당인 추심방과 변심방, 제주도 출신의 제일교포 2세인 고종민, 제주도 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과장 같은 인물이 그 주변을 에워싼다. 추심방의 아들 추만우, 변심방의 딸 변금옥은 정요선과 함께 슬쩍 애정의 삼각관계 비슷한 것을 그려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의 운명을 성찰하는 중도적 시선의 인물로 나오는 고종민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4·3사건의 희생자였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일본으로 건너가 아예 귀화한 아버지(고한봉)를 둔 일본 국적의 고종민은 제주도 민속을 연구하는 민속학자다. 그의 시선은 마치 「당신들의 천국」의 이상욱 과장의 시선처럼 의심하고 탐문하면서 문제를 추리해간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제주도민의 애환과 운명, 셋김굿 등 다양한 국면을 그는 조사하고 추리하며 제주도의 역사성과 신화성, 현실성을 새삼 환기시켜준다. 그런데 그의 경험과 추리를 통해 드러난 생각 역시 추심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역사의 땅”이

라는 시각이다. 제주도는 역사성과 신화성, 그리고 현실이 맞물려 있는 독특한 공간임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소설의 등장인물이 왕래하는 시기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 석 달간의 시공간이다. 그 등장인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기는 33년 전인 1948년 제주 4·3사건이다. 4·3항쟁이 발발한 48년도가 아닌, 80년대의 초반의 시대상황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풀어내는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해방 이후 남한 땅에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원혼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두 큰 일이 이 소설의 소재로서 양축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건발생 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당시 희생자 중 일부는 생존해 있는 등 4·3은 여전히 진행형 사건이라는 작가의 역사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소설은 육지무당인 유정남이 아들 정요선과 신딸 순임을 데리고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1979년 12·12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 들어 정권의 새로운 명분을 만들 요량으로 ‘역사씻기기’ 사업에 돌입한다는 상황이 설정돼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의례 ‘역사씻기기’ 혹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곤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한차례 ‘굿’에 머문다는 비판적 생각이 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다.

하για 따지고 보면 애초 이 군부정권이 벌이고 있는 ‘역사 씻기기’ 사업이라는 것이 웃기는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 희극 판에 매달려 웃지도 못하고 반년 가까이 이 우스운 섬 일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자신이 문제였다.

군부 세력의 엄중한 계엄 통치와 그에 맞선 재야 민주세력의 거국적인 저항 운동, 나라의 안전과 보위를 명분으로 내세운 군부의 갖가지 억압조치와 무자비한 검거 고문 선풍, 그에 대항하는 민간 정치세력과 젊은 학생들의 집요한 집회 시위가 연일 최루 가스나 투석전, 성명서와 새 포고령, 끝없이 재생산되는 유언비어의 홍수 속에 전국을 짊짊 암흑으로 뒤덮어갔다. 정국의 향방과 나라의 명운이 내일을 점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런 정국의 불안을 잠재우고 위태로운 권력을 지키려는 방책의 하나로

일부 계엄 지원 배후 세력기관이 궁리해낸 것이 다름 아닌 이 ‘역사 씻기기’ 사업이었다. (고덕표시-인용자, 60면)

작중인물 고종민의 생각에 의지해서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과 음험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다. 비록 간접화의 서술에 의존했지만 좀처럼 보기 드문 직설적 담론의 형태를 띤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러한 ‘역사씻기기’의 작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 작품의 기저에는 허울과 명분으로 포장한 ‘역사씻기기’에 의지한 해법에 대한 회의론이 스며있다. 당연히 이는 그러한 명분에 휩싸여 부화뇌동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에 대한 경종과도 맞물려 있다.

이청준은 이 작품에서 4·3사건을 보는 시각이 현기영을 비롯해 여타 작가들의 접근방식과 다소 다른 맥락에서 작가의 축수를 작동시킨다. 현기영을 비롯해 일부 작가들이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이것을 문학의 화두로 삼아왔다면<sup>23)</sup>, 이청준의 소설은 그러한 비극을 잉태한 동인, 그리고 열망의 좌절에 초점을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명분 축적을 위한 ‘역사씻기기’의 허위성을 비판하면서 망자를 진정으로 위무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원한을 씻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는 갈망에 더 비중을 둔다.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무속을 동원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상통한다. 근래 들어 무속은 외래종교의 유입으로 인해 지금은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고유의 토속적 민간신앙이다.

23) 현기영은 「순이 삼촌」을 비롯해 4·3사건을 자신의 문학적 화두로 삼고 창작에 심혈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작가다. 현기영의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자의 시각이 온당하다. “4·3사건이 단순히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 분단현실에서 빚어진 냉전적 대결과 이로 인한 온갖 참화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작가의 작업에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282면). 현기영 외에도 현길연, 오성찬을 비롯해 적지 않은 제주 문인들이 4·3사건을 소재로 창작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일정 정도 문학적 성과를 일궈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2003, 3)을 참조.

제주민을 비롯해 이 땅의 백성들은 무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자를 지닌다.

망자라는 존재는 신들의 세계에서나 인간의 삶의 세계에서나 정상적인 질서를 흔들어 놓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 망령으로 하여금 각 구조의 질서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망령이 처할 수 있는 위치는 결국 신들의 세계뿐이다. 그러나 망령은 신들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질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이다. 삶의 세계에서 질서 밖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령은 죽음의 세계를 방황하다가 자기에게 익숙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를 찾아와서 주변을 맴돌거나 삶의 질서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삶의 정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 망자 자신에게나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나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sup>24)</sup>

이러한 대목을 통해 우리는 『신화를 삼킨 섬』에서 무당들을 등장시켜 서사적 골격을 유지하려 한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소설은 젊은 박수 정요선과, 일본에 귀화한 4·3 피해자의 아들로 민속학을 공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온 고종민의 시선을 통해 4·3이라는 역사적 진실과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교차시킨다. 평범한 학생인 고종민이 진실에 다가가는 방식이 의식적 탐문이라면, 무당인 정요선의 방식은 무의식적 탐문이다. 작가는 여느 4·3사건 관련 문학작품과는 달리 국가 폭력에 대한 직설적 고발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무속신화를 타래처럼 엮어가면서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청준 소설의 원형에 가까운 접근이기도 하다. 이청준 소설은 당대의 한국 소설 가운데 광기나 정신 분열 현상 및 의식의 심층적인 증후군에 대해서 가장 각별한 문학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자아구조는 거개가 정신의학의 증후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sup>25)</sup> 그의 대표작인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나환자 수용소에서 병

24) 김인희, 앞의 책, 262면.

을 매개로 한 환자와 의사들의 심리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소문의 벽』에서는 전깃불 공포증과 진술 공포증의 정신병 환자인 작가 박준이 등장하고 있으며, 『황홀한 실종』에서의 주인공 윤일섭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고, 『조만득』에서의 주인공 ‘조만득’ 또한 과대망상성 전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이다. 이들 주인공들 모두 60년대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낳은 희생양이자 피해자들인 셈이다.<sup>26)</sup>

이런 점에서 『신화를 삼킨 섬』 역시 이청준의 다른 작품에서 강조한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메카니즘에 대한 고발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다. 다만, 고발의 방식이나 상처의 위무방식, 혹은 해원의 방식이 다른 작품과 다소 다를 뿐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도 실제적 진실에 대한 구명 의지에서 나온 고발의 방식이 수면으로만 침잠되어 있는 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 그러한 징후들을 드러내 준다.

1) 가. 희생자: 김성진(당시 70세. 복제주군 조천면 교래리: 이하 같음)김생진(65) 김성지(63) 김성지의 처(60) 김인생의 모(70) 부영숙(여, 38) 부영숙의 자(3) 양남선의 자(5, 3) 김영자(여, 15) 고옥심(여, 14) 김순생(10) 김문용(9) 등 22명

나. 희생시기 및 장소: 1948년 11월 13일. 상기 주소지 마을.

다. 상황 및 사건 성격: 마을 주민들이 무장대에게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혐의를 둔 토벌군의 중산간 마을 첫 초토화 작전 양상. 인명 희생과 함께 중산간 마을 첫 초토화 작전 양상. 인명 희생과 함께 중산간 마을 1백여 전 가옥 소실.

라. 증언자료: 양복천 노파(70. 희생자 김문용의 모)—새벽 잠결에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여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온 마을 집들이 이미 무서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토벌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을을 불질러 놓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중략)— 딸아이를 업은 채 쓰러진 나를 보고 아홉 살 난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달려들었고, 토벌대는 그

25)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30면.

26) 최현주, 「민중적 생명력과 역사의식의 형상화」, 『한국언어문학』 제50집, 2003, 5, 479면.



아이를 향해 다시 총을 쏘았다. (...)토벌대가 가버리자 나는 우선 총을 맞은 아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마당으로 끌어낸 뒤 등에 업혔던 두 살짜리 딸아이를 내려 살렸다. 아이가 울지 않아 그 때까지만 해도 그 딸아이까지 총에 맞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내려 살펴보니 내 옆구리를 뚫은 총알이 포대기 속을 파고들어 그 아이 왼쪽 무릎을 부숴 놓고 있었다(제주일보 자료실).(53-54면)

2) 그런데 이 과정에게서 얻어온 섬의 역사와 현황 자료를 뒤지다가 '4·3사건의 전말과 섬의 과제'라는 항목에서 한 가지 놀랍고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소위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의 사연 중에 끼여 있는 한 망자의 이름때문이었다.

백조일손지묘란 그 명문(銘文)만큼 기막힌 사연을 지닌 합동묘지였다. 제주도 4·3의 큰 환란을 겪고 난 직후인 1950년 6·25사변이 터지자 섬에선 다시 사상 성향을 의심받은 많은 4·3사건 전력자들이 예비검속 명목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 다수가 또 집단희생을 당했는데, 그런 사례의 하나가 1950년 8월 20일 섬 서쪽 모슬포 첫알 오름 부근의 옛 탄약고 터 참사였다. 일이 있고 나서 당국자들은 수습을 못하다가 나중에 유족들이 현장을 찾았을 땐 누가 누군지 서로 백골만 영켜 있었다. 유족들은 할 수 없이 1백 32가구의 유골들을 대충 나눠 수습하여 공동 무덤을 조성하고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모든 유골을 자기 조상으로 함께 모시는)'이란 뜻의 '백조일손지묘'로 함께 제사하기 시작했다.(134면)

3) 그래서 이 섬의 비극은 바로 이 나라의 비극이요, 그 비극의 역사는 이 나라 전체의 비극사가 된다는 말인가?

종민은 그 음습한 이 나라 역사의 무게가 새삼 등덜미를 짓눌러 오는 듯한 느낌에 잠시 상념을 접고 길가로 차를 세웠다.(고딕표시-인용자, 2권, 19면)

인용된 대목들을 통해 우리는 이 작품 역시 4·3사건의 실제적 진실의 규명에 한 측면을 겨누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죽은 양민들의 회생에 분노하고, 그러한 사태를 이르게 한 역사적 실체와 그 동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

인들을 비롯해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이 합리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27)</sup> 동시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제주민의 원망(願望)의 실체를 밝히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신원(伸冤)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문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4·3사건으로 피울음이 배어 있던 '한'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불어 닥친 한국전쟁은 제주에 또 다른 '광풍'을 맞는다. 죽고 죽이는 살육이 제주에서도 반복된다. 그럼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무수한 희생자를 내는 동안 이 땅의 지도자를 비롯해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회한은 문정국의 입을 통해 작가는 '망명론'을 부각시킨다.

문정국은 이어 그 위태로운 망명론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혹독한 유신정권의 비극적 종말로 하여 우리는 지난 일 년간 '서울의 봄'이라는 부른 꿈속에 젖어 살아 왔다. 그러나 정녕 지금 이 나라에 봄이 오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아련한 봄의 꿈은 바야흐로 신군부 세력의 노골적인 권력 음모와 억압 앞에 서서히 멀어져가고 미구엔 비정스런 겨울 폭풍이 몰아칠 작금의 정국 형세다. (...) 그래서 기자는 이 나라 문학인과 지식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지금 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그 망명은 차라리 조국 앞의 문학적 혹은 실제상의 자결의 뜻이기도 하거니와)을

27) 필자는 2003년 4월 제주작가회의 주관으로 '작가와 함께 하는 4·3문학기행'에 참가해서 단일 사건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낳은 북촌리 일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북촌리 일대는 4·3의 상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화소(話素)라는 생각이 들만큼 그 때의 상흔을 짐작케 하는 역사현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곳이다. 당팻, 북촌국민학교, 북촌 포구, 북촌 도대불, 4·3 성터 등등. 더욱이 북촌국민학교 교정 및 그 주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양민들을 모아놓고 당시 지휘관들이 즉석회의를 한 결과, 한 장교의 '대부분의 사병들이 적을 사살해 본 경험이 없으니 적을 사살하는 경험을 쌓을 겸 몇 명 단위로 총살시자'는 제안이 채택되어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니 말로만 듣던 '백살일비(百殺一匪)'를 실감케 했다. 단일 사건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민간인의 희생자가 약 400여명에 이르렀으니 그 무모함과 광포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마치 부모 형제들이 쓰러져 죽을 때 그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아우성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좋고, 「4·3문학 기행 참가기」, 『제주작가』 제10호, 266-280면 참조.

떠날 생각은 없는가. 작품 속의 이명준처럼 실제로 그의 망명과 같은 은몸을 내던지는 저항을 보여줄 수가 없는가. 지금 이 가파르고 엄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왜 망명과 같은 전면적 거부와 저항을 보여주는 작가나 지식인을 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가. 그 같은 자신과 권력의 공동 부정의 길 이외에 어떤 다른 저항의 몸짓도 그 권력과의 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는 자기 생존전략 밖에 결과한 풀이 돼오지 않지 않았는가. 그에 비해 그 망명의 길은 오히려 망명정부가 민족의 생존과 삶의 꿈을 담보하듯 당신들의 문학이나 독자들이 이 현실을 견디며 싸워 이겨내게 하는 전략과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신들의 지적 자존심과 문학의 존엄성은 어디 있는가.(고덕표시 인용자, 2권, 67면)

기자의 입을 빌린 위의 진술은, 이 땅의 지식인과 문학에 던지는 작가로서의 회한의 메시지다. 동시에 작가 자신에게 던지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보다 직설적으로 보자면 열망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민중이 고통 받고 절망할 때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식인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셈이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역사의 굽이마다 기득권 세력과 영합해서 그럴 듯한 명분으로 민중들을 기만하면서 비극적 현실을 외면해 온 전력에 대한 힐책의 메시지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타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과 문학이 이런 사건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야 함은 물론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집단적 몸부림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4. 해법을 찾아서

김종민은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피해의식의 양상을 ①빨갱이(레드 콤플렉스), ②가위눌림(공포· 자괴감), ③폭도(공범의식), ④청년이센 마을일수록 회생이 컸다(허무주의), ⑤육지 것들(멸시· 배타성), ⑥밀세다리(불신평조)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sup>28)</sup> 이런 점에서 4·3사건은 제주민

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엮어매는 원죄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각인되는 역설이 자리한다. 현기영의 다음과 같은 절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4·3의 수만 원혼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혼되지 않았기에 서슴에 안착할 수 없는 그들은 결코 썩은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검들로 남아 있다. 대저 슬픔이란 눈물로 한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4·3의 슬픔은 눈물로도 필설로도 다할 수 없다. (-중략-)억울한 죽음만이 수호신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4·3의 우리 조상들은 가장 억울한 넋이기에, 그것도 수만의 세력으로 뭉쳐 있기에 가장 영험 있는 수호신이 된다.<sup>28)</sup>

현기영은 제주 출신의 작가로서 4·3사건을 보는 자체가 여느 작가와 남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사건을 문학의 화두로 삼고 창작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반면 이청준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 한다. 앞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 못지않게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망자들의 원혼을 위무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정부와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역사씻기기’와 같은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망자들의 원혼’을 진심으로 위무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유대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서 본 중도적 시선을 지닌 고종민에 의한 탐문이 의식적 방법이라면, 일련의 샤먼들에 의한 무의식적 탐문의 방식이 또 하나 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육지부에서 건너온 정요선과 섬의 변심방의 딸인 연금옥과의 애정서사다. 뱀 당신를 둔 연금옥은 제주도와 제주 샤먼의 운명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어찌든 육지로 탈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결국 연금옥은 섬 안의 추심방에서 내림신굿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정요선은 연민을 가진 채 섬을 떠난다. 이 애정 서사 역시 ‘자생적 운명의 형식을 두드러지게 하는 서사

28) 김종민, 「4·3에 관한 기억들」, 『제주작가』 제2호, 실천문학사, 1999, 42-57면.

29) 현기영, 「4·3을 발견하면서 재발견한 몇 개의 화두들」, 『제주작가』 제4호, 71면.

구조를 형성'하는 대목이다. 결국 제주도의 독특한 역사성·신화성·현실성을 수용하면서 자생적 운명의 행로를 받아들이는데서 출발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어설픈 방식에 의한 거짓 화해에 의존하기보다 망자와 산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해원의 방식에 더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따라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쉽 없이 오늘을 희생해야 했던 “제3의 도민층”에게 오른쪽인 한얼회도, 왼쪽인 청죽회도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는 “가짜 구세주”일 뿐인 것이다. 셋김에서조차 한얼회니 청죽회니 좌우 입장의 편가르기로 또다른 원혼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유골 탈취사건 같은, 비참한 연쇄고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제발 희생된 녀들이라도 그저 편안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제주일보 편집국장 송일<sup>30)</sup>의 입을 빌려 작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국가나 역사의 이념은, 실은 그 권력과 이념의 상술은 내일への 꿈을 내세워 오늘의 땀과 희생을 요구하고, 그 꿈과 희생의 노래 목록 속에 오늘의 자신의 성취를 이뤄가지만, 오늘의 자리가 없는 인민의 꿈은 언제까지나 그 성취가 내일로 내일로 다시 연기되어가는 불가항력 같은 마술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지요”(2권, 78면)

인용된 대목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내일만이 강조될 때 오늘의 실존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제주민, 아니 이 땅의 백성들을 국가(사회)가 더 이상 그럴 듯한 명분과 포장으로 기만하는 일이 반복되지 말기를 기원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망자들의 셋김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모멸과 역사에 대한 환멸로 절망해 버린 지식인들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그렇게 바램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망자들의 셋김의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

30) 1945년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신문, 제민일보, 한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실존인물 송상일을 모델로 한 것이다. (『제주작가』 10호에 실린 ‘송상일 대담’의 92쪽 참조). 그의 저서 『국가와 황홀』(문학과 지성사, 2001)은 이 작품에서 『국가와 시의 충돌』으로 변용되어 이 작품에서도 간간히 인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작품에서는 실존인물이나 그 밖의 단체를 소설적인 가공을 거쳐 등장시키곤 한다.

났듯이, 또다시 민중들을 옥죄고, 지식인들을 내세워 기만하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예고해 준다. 절망과 좌절 위에 피는 꽃이 희망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비평가의 지적도 이청준의 이러한 현실인식의 단면을 정확하게 진단한 발언으로 이 작품에 적용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이청준의 세계는 현실적 정신주의, 비극적 현실주의라 부르고 싶다. 이청준의 세계는 정신주의의 세계이되 추상성을 목표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힘의 원리를 탐색하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이청준의 세계는 현실의 밖으로 나가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로 귀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점에서 비극적 현실주의이다.<sup>31)</sup>

## 5. 맺음말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제주 4·3사건’을 통해 제주인의 한(恨)과 원망(願望)의 좌절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우리 현대사를 작품의 직접 배경으로 삼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를 지닌다. 특히 원망(願望)의 좌절과 그 해원(解冤)의 방식을 독특한 관점으로 접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다. 대하소설 혹은 역사소설의 형식을 빌은 이런 유형의 작품들은 문학 독자들에게 문학을 통해 역사의 자양분을 풍요롭게 섭취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문학의 지평을 넓혀 주기도 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민감하거나, 혹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현대 사건에 대해 비교적 거리를 두었던 이청준의 작가적 행보로 볼 때 이 작품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작품 역시 기저에는 국가(사회)의 폭력으로 인해 개개인의 열망이 좌

31) 김현, 「떠남과 되돌아옴」, 『김현문학전집』7, 문학과 지성사, 1992, 148-149쪽.

절되는 비애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도 텍스트상호성(intertextuality)을 맺는다고 보았다.

이 작품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무대가 주로 '제주'라는 공간성에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품세계는 '제주'에 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제주의 '비극'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열망의 좌절과 아픔에 대한 치유방식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히 4·3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 머물지 않고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열망하는 사회의 건설이 좌절됨으로써 겪었던 비애와 상처를 위무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의 구명에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4·3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점들이 이 작품에 약점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문학은 역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고 증언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숙명적으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작가의 문학관과 맞닿아 있는 만큼 산술적 비율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드러난 원망(願望)의 좌절과 해원의 방식이 4·3사건의 문학화에 이정표를 세우게 될지 여부는 더 많은 연구자와 독자들과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품이 해방공간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암울한 이면을 잘 포착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아픈 상처를 위무하고 치유하는데 탁월한 방식을 제시해 준 가작임에는 틀림없다.

#### <참고문헌>

권오룡 외, 『이청준론』, 三人行, 1991.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3.

- 김병택, 「4·3소설의 유형과 전개」, 『한국문학과 풍토』, 새미, 2002
- 김병익 편, 『이청준: 우리시대의 작가연구 총서』, 은애, 1977.
-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 김열규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8,
- 김윤식, 「당신들의 천국: 자율적 운명의 끈」, 『황홀경의 사상』, 흥성사, 1984.
- 김인회, 『한국무속사상 연구』, 집문당, 1993.
-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김정남,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예술관 연구」, 『국어국문학』 제133호, 2003, 5.
- 김종희,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 김치수, 「이청준과의 대화: 복수와 용서의 변증법」,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김혜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방식 연구: 이청준의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48집, 2002, 6.
- 김 현, 「이청준에 대한 세 편의 글」,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80.
- 나병철, 「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현역중진작가연구』1, 국학자료원, 1997.
- 송상일, 『국가와 황홀』, 문학과지성사, 1993.
- 오세정, 「제의적 공간과 신화적 인식」,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 유명옥, 『집 없는 무당』, 2000, 2.
- 이광호, 『움직이는 부재』, 문학과 지성사, 2001.
- 이대규, 「이청준 소설의 시공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호, 1996, 6.
- 이어령, 「문학공간의 기호론적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 장수익, 「한국관념소설의 계보」,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 장일구, 「과도의 공간, 그 신화적 원형과 서사적 범주」, 『한국문학과 신화』,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제 9회 전국학술발표대회요지집, 2004, 6, 18.
- 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제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2003, 9.
- 임헌영·강형철 편, 『4·3도 유채꽃: 4·3민중항쟁작품집』, 1988.
- 전홍남, 「4·3 문학기행 참가기」, 『제주작가』 제10호, 2003, 6.
- 최현주, 「민중적 생명력과 역사의식의 형상화」, 『한국언어문학』 제50집, 2003, 5.
- 장 벨맹-노엘 최애영·심재중 옮김,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 M. Eliade,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출판부, 1985.
- G. Bachelard, *La P'oetique de L'espace*,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 J. H. Miller, *Topographies*, Stanford Univ. Press, 1995.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 N. Frye, *The Stubborn Structure*, Methuen & Co. Ltd, 1980.
- R. Bourneuf R. Ouellet, *L'univers du Roman*, 김화영 편역, 『현대소설론』, 문학사상사, 1986.
- Yi-Fu Tuan, *Space and place*,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 Walter J. Ong,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